

이슬점 (露點 / dew point)

김민재

눈을 감는다.

마음이 차분해진다.

숨어있던 온갖 걱정, 생각, 후회, 기분, 기억이 슬금슬금 모습을 드러낸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방울 방울들이 서서히 바닥을 가득 채운다.

그것들은 뻑뻑하게 바닥을 메웠다.

정적이 흐르고, 온도가 낮아지고, '이슬점'에 도달한다.

바닥에 있던 나의 걱정, 생각, 후회, 기분, 기억이 하나하나 차례로 공중에 떠오른다.

너무 멀리 있어 시야에 보이지 않던 것들까지 공중에 떠오르자 보이고, 저기 멀리 까지도

생각이 닿아 있었구나, 나는 감탄한다.

그리고 하나하나 떠오르던 것들이 내 화면을 채운다.

마치 안개가 낀 듯 더 이상 앞을 분간하기 어렵다.

생각의 안개 속, 나는 당장 바로 앞조차도 보기 어렵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난 이게 좋다.

나는 이제 안다.

·
·
·

물방울 그리고 수증기

나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고 했다. '예측하는 것이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두렵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나는 학창 시절 때 친구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면접관들이 물어볼 질문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상대방과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모두 짜서 현실에 대입했다. 그리고 큰 문제 없이 그런 해프닝들은 해결됐었다.

또 나는 학교에서 간단한 쪽지 시험을 보더라도 쉽게 낼 것을 알지만 혹여나 모르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밤을 세우고 불필요 한 부분까지 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아이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대학까지 안정적으로 온 것을 보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언제나 과하게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 했었다.

나는 차분하게 생각 한다면, 복잡하지만 언젠가는 풀리는 어려운 문제처럼, 걱정의 물방울들을 차분히 줄 세워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본다면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아이였다. 나는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했다.

이슬점에 도달하다.

'일어날 미래를 모두 예측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된다' 라..., 참 좋은 해결 방법이었다. 내가 나이를 먹기 전까지는 말이다. 성인이 되자 눈앞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게 되는 것들 또한 많이 생겨났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수많은 관계,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정말 관계가 없는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일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내가 생각했던 경우의 수를 벗어나는 사건이 학생일 때와는 달리,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시험문제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 가 편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될 대로 되라지~' 라고 쿨하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나는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은 또 수많은 걱정을 낳고 그 방울들은 더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방울들은 갓 성인이 된 나를 무척이나 괴롭게 했다.

모든 것의 경우의 수를 모두 생각하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 그 믿음이 붕괴되었다. 내가 완전한 존재라고 여겨왔던 ‘어머니’라는 존재가 불완전한 나랑 비슷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된 사건 그 후로 말이다.

갓 성인이 되었을 때였을 것이다. 나는 크게 어머니와 다툰 적이 있었다.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울면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라고 말이다. 그 대답은 나의 머리를 가격했다. 나는 어머니도 나 같이 어린 시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송연희’ 씨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 역할을 가진 완전한 존재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완전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부정당한 이후로 나는 불완전한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안개 같아 당장의 앞도 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안개와 구름

이 글을 적으며, 고등학생일 때 과학 시간에, 안개와 구름에 관해 공부한 것이 생각났다. ‘안개는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불린다.’라는 사실이 말이다. 높은 산 위의 것은 지상에서 관측하면 구름, 그리고 산 위에서 관측하면 안개라고 한다. 구름과 안개, 그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이다.



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서 구름이 이쁘다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구름 아래에 있고 고개를 들어 언제나 볼 수 있다.

안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기 어렵고, 영화 속 공포의 클리셰로 많이 사용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그들은 동일한 존재이다. 그러한 사실을 되뇌이며,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닌, 아름다운 존재로 생각을 바꾸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슬점에 도달한 수증기 안개가 되다.

이러하듯 현재의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만든 안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앓는 척하려 노력 중이다. 20 살 동안 안개 속에 살았고 그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나는 달라지려 노력 중이다. '어렸을 때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내게 멀리 존재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의미를 알지도 모르겠다.

아니, 이제 나는 안다.

·
·
·

질문 : 나는 어떤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는가?